

'2024 군산시간여행축제' 열린다

내달 3일~6일, '근대 놀이' 주제로 놀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시간여행 퍼레이드·불꽃놀이 등 볼거리·즐거거리·먹거리 '풍성'

군산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2024 군산시간여행축제'를 개최한다.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일제강점기 민중의 항거와 치열한 삶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근대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이다. 올해는 '근대 놀이'를 주제로 진행되어 놀이에 대한 주제성을 강조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10월 3일에는 '시간여행 퍼레이드'가 해방골에서 구시청광장까지 진행된다. 군산시민 및 공동체 500여 명이 함께 행진하며, 퍼레이드가 끝나면 개막식과 불꽃놀이로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축제의 밤에는 다양한 무대공연이 흥을 돋운다. 먼저 10월 4일 오후 7시에는 경서, 육종완밴드와 함께하는 '시간여행 청년뮤직콘서트'가 관람객들을 찾아가는다.

이외에도 △근대 컨셉 퍼포먼스 공연대회 '군산항 탐부두 쿠폰' △시민이 모델로 참여하는 '시간여행패션쇼' △스트리트 마당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선보인다.

흥미진진한 체험·전시 프로그램도 풍부하다. △이성당 옆 골목에서 미션 로드로 진행되는 '군산대항독립만세 미션게임' △한강 이남 최초 만세운동을 새롭게 재현한 '우리모두 3·5만세' △NH농협은행과 함께하는 '근대 길쌈놀이' △공중전화에서 걸려오는

미션을 수행하는 '받아라! 미션공중전화' △전북서부보훈지청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1919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서' △과거, 현대, 미래 놀이를 한번에 만나는 'Let's play 로드' △추억의 로라장 등을 통해 놀이와 체험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는 구)시청광장에 특별무대를 설치하고 광장 옆 대학로 도로를 통해 주요 축제장으로 꾸밀 계획이다. 근대 역사박물관 인근 장미공원 일대와 백년광장, 구)군산초교 운동장 등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대학로 길바닥에 자유롭게 낙서할 수 있는 '길바닥 낙서장' △대형 칠판 낙서장 △길바닥 광(光) 방명록을 통해 방문객들의 소통의 공간을 표현하고, △공통전시와 화포 체험이 진행되는 '군산공통대탐험' △축제장에서만 찍을 수 있는 인생샷인 '모던레킷 in 군산'이 대표적이다.

지역 상인들과 함께하는 먹거리들도 준비된다. △시간여행마을 먹거리장터(테마거리) △월지로 골목아시장(맛의 거리)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장미공원 인근에서는 커피와 빵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빵야빵야 △커피야 놀자 △대학로 옆 구영7길에서는 '맛있다 너! 주전부리' 부스는

먹는 즐거움도 한층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축제에 관람객들이 오래 머물면서 즐길 수 있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 하기 위한 행사도 준비했다.

△모아모아시간은 군산 관광지 연계를 위한 축제 참여를 통해 시간을 모아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모아모아영수증은 시간여행마을 일일 7만원 이상 영수증을 가져오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는다.

특히 △탐블러쿠폰제는 개인탐블러 사용 후 교환권에 도장을 받아오면 기념품을 제공해 환경보호를 장려하는 일석이조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구)시청광장 옆 대학로 구간을 활용한 거리형 축제장 조성에 따라 10월 2일 오후 10시부터 10월 6일까지 구)시청사거리에서 내항사거리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

해당 구간 통행 차량은 해방동 방면(구시청사거리→해신동주민센터→해양경찰서)과 죽성로 방면(구시청사거리→구구거리→재보선참상거리)으로 우회하도록 유도하고 우회 도로변에는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주차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군산시간여행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간여행축제' 누리집과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 페이스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재경군산시민회, 시민의 날 맞아 군산 방문

지난 1월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등 꾸준히 고향 발전 응원

27일 '군산시민의 날'을 맞아 재경군산시민회(회장 빈원영)가 고향 군산을 방문했다.

이날 재경군산시민회 회원 50여 명은 군산시민의 날 행사장과 고군산군도 일원 등 지역 명소를 방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빈원영 재경군산시민회장은 "발전한 군산의 모습을 보며 자긍심과 애郷심을 느낀다"라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향을 잊지 않고 군산 발전을 응원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제7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성료

'행운' 주제로 손편지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인기'

지난 27일 막을 연 제7회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에 많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낭만의 옛 시절 추억을 재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았다.

이번 행사는 '행운'이란 주제로 손편지 쓰기, 우체통 색칠하기, 나만의 우표 만들기, 길거리공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를 마련했다.

또한 김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손편지 축제를 위해 준비하신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군산 우체통거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NS푸드페스타' 탄소중립 실천 앞장

일회용 앞치마 대신 조리사복 착용·다회용기 등 사용

익산시가 지난 26~27일 열린 'NS푸드페스타 2024 in 익산'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에서 음식 업체들은 일회용 앞치마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조리사복을 착용하고, 참가객들은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지정된 부스에 반납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했다. 또한 무

를 전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바쁜 외출에도 고향을 찾아주시고 늘 군산 발전을 응원해 주시는 재경군산시민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군산과 재경군산시민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재경군산시민회는 1998년 12월 22일 창립, 군산 발전을 지원하고 응원해왔으며 매년 고향 사랑 실천을 위해 고향 방문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다. 올해로 7회째인 손편지 축제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군산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회장 배하서)가 직접 주관하는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상품 키트(도구 꾸러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노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자리잡았다.

배하서 군산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 회장은 "그동안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해 손편지 축제가 더욱 알차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라벨 투명 페트병 생수 사용, 올바른 재활용 분리 배출·수거를 위한 청소 클린존을 운영했다. 익산시는 부스를 운영해 투명 페트병과 우유팩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참여를 독려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한(韓)문화 발상지 익산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한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10월 1일 '고도 한눈에(愛) 익산세계유산센터'에서 '한문화의 발상지 익산, 가치정립 및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韓)문화의 발상지인 익산이 갖는 역사적 위상과 가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익산의 분산된 세계유산과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한눈에 살펴보기 위해 금마면에 조성된 '고도한눈에(愛) 익산세계유산센터' 개관 첫날에 개최돼 의미를 더한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김숙옥 전북대학교 교수가 '한(韓)의 시작과 중심, 민중강원역 마한문화의 특징과 통력'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박순발 충남대학교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를 비롯해 최원규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회의는 한문화의 발상지로서 익산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며 "학술회의를 계기로 대한(大韓)의 원류이며 삼한의 중심지로 고도 익산이 재조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48대 합동점검

익산시가 지난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익산경찰서,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서 지역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48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항목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구조·장치 결합 여부, 안전운행 기록 여부 등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신청사 입주식 개최... 이전 본격화

10월 4~14일 7국 35개 부서 순차 입주

익산시청이 54년 만에 새 보금자리로 이사하면서 흠뻑 젖어 근무하던 부서들이 한 데 모인다.

익산시는 오는 30일 신청사 입주식을 열고 본격 이전 절차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30일 오전 11시 신청사 1층에서 열리는 입주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시의장을 비롯, 간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익산시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할 예정이다.

김해진 캘리그래피스트의 퍼포먼스와 테이프 컷팅식, 기념 촬영에 이어 10층 직원 식당에서 단체 오찬을 진행하는 것으로 간단한 입주식은 마무리된다.

신청사는 현청사 바로 뒤편에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4만 234㎡ 규

모로 지어졌다. 입주부서는 7국 35개 부서로 정원 950여 명이 근무하게 된다.

부서별 이전은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4일에는 △기획예산과 △감사위원회 △정책개발담당관 △홍보담당관 △시민안전과가 집을 옮긴다.

주말인 5~6일은 △이동보육과 △북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복지과 △행정지원과 등 평일에 민원인이 자주 방문하는 부서 중심으로 이동이 이뤄진다.

또 팔봉동 임시청사에 나가 있던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유산과 △녹색도시조성과 △기업일자리과 △미래산업과 △청소자원과 △소상공인과는 7일 이사한다.

8일은 본청 스마트정보과와 임시청사 체육진흥과, 남동동 2청사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가 입주한다. 10일은 국가식품롤러스터담당관과 위생과, 국민생활관에서 근무하던 교육청소년과, 여성화관에 있던 공영개발과가 각각 거처를 옮긴다.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는 종합민원과와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등은 주말인 12~13일 입주한다. 이어 끝으로 의회 청사가 14일 이동하며 전체 입주 일정을 마무리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민원콜센터(1577-0072)를 통해 부서별 이사 일정을 확인한 후 청사에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며 "차질 없는 이전작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